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568호(2026.11.10 ~ 2027.01.31)

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26년 10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61억 원

-모투자신탁 186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2014년 11월 7일 종류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5월 25일)

- 클래스 A : 2014년 11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11월 14일
- 클래스 C-E : 2014년 11월 13일
- 클래스 C-PE : 2026년 07월 08일
- 클래스 C-W : 2015년 01월 06일
- 클래스 S : 2014년 12월 0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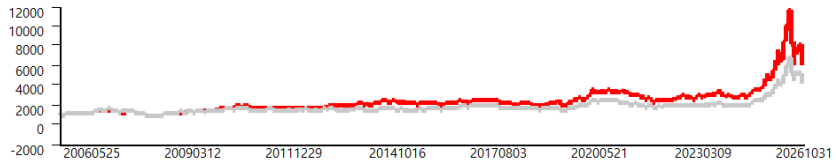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8.63%	-12.63%	-23.51%	30.98%	121.83%	161.95%	98.23%	534.53%
클래스 A	-18.79%	-13.04%	-24.23%	28.79%	114.64%	149.30%	82.28%	165.84%
클래스 A-E	-18.73%	-12.90%	-23.98%	29.55%	117.14%	153.70%	87.77%	176.38%
클래스 C-E	-18.74%	-12.92%	-24.02%	29.44%	116.73%	152.96%	86.83%	171.54%
클래스 C-PE	-18.72%	-12.88%	-	-	-	-	-	-31.92%
클래스 C-W	-18.69%	-12.80%	-23.81%	-	-	-	-	30.77%
클래스 S	-18.72%	-12.89%	-23.95%	29.62%	117.36%	154.07%	88.23%	180.07%
벤치마크	-16.19%	-13.11%	-13.16%	39.52%	124.19%	151.57%	92.91%	329.7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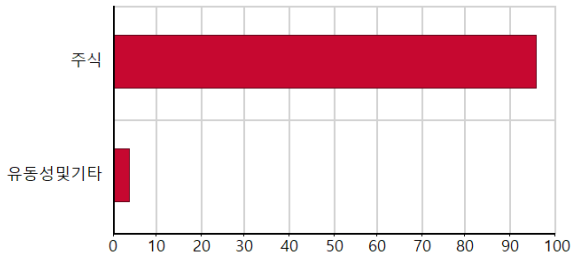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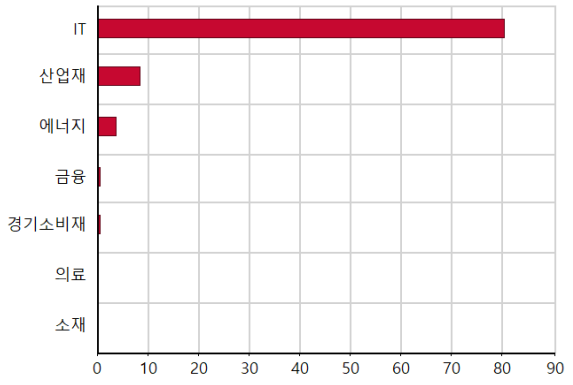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6.1
2	유동성및기타	3.9



<주식 업종별>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80.5
2	산업재	8.6
3	에너지	4.1
4	금융	1.0
5	경기소비재	0.9
6	의료	0.4
7	소재	0.4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9.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4.2
인텍플러스	기계·장비	3.3
SK스퀘어	금융	3.1
삼성전기	전기·전자	2.4

종목명	업종명	비중(%)
SK이노베이션	화학	2.4
대덕전자	전기·전자	2.4
RF머트리얼즈	전기·전자	2.3
상신이디피	전기·전자	2.2
삼화콘덴서	전기·전자	1.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26년 10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 (판매 1%)
- 클래스 A-E : 총 연 1.1%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2% (판매 0.5%)
- 클래스 C-PE : 총 연 1% (판매 0.3%)
- 클래스 C-W : 총 연 0.7%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0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65%, 신탁 0.0375%, 사무관리 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6.19% 하락한 5,730.74pt, KOSDAQ은 15.3% 하락한 724.38pt로 마감했습니다. KOSPI는 10월 2일 7,003.74pt로 7,000pt 선을 잠시 회복했으나, 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하며 6,300pt까지 밀렸습니다. 중국 CXMT의 메모리 추격과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우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상회, 코어위브 채권 급락에 따른 AI 자금 조달 우려가 겹치며 두 시장 모두 매매 일시정지 장치(매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월 후반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로 매수세 공백이 생기며 10월 26일 5,469pt로 저점을 찍었으나, 호실적과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AI 투자 부담이 다시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호조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KOSDAQ은 이런 우려와 미국 금리 부담이 성장주 전반으로 번지며 반도체 소부장,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 음식료, 보험이 강세, 조선, 기계, 정유가 약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30원(전월 대비 -1.70%), WTI 유가는 104.12달러(+6.46%)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19.5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조원, 4.1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펀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산 50% 중반의 비중으로 보유하는 가운데 반도체 밸류 체인 중소형주를 벤치마크 대비 높게 편입하고 있었는데, 10월 중순 이후 외국인 매도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밸류 체인 중소형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들 종목의 낙폭이 지수보다 컸던 점이 하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은행, 자동차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전자부품, 반도체, 반도체 장비·소재 업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지수 급락 과정에서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미보유 효과와 ESS 밸류체인에서 고객 다변화가 기대되는 상신이디피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광통신에 대한 기대감 대비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 RF머트리얼즈, AI 밸류체인의 동반 하락 과정에서 시장 비중 대비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던 삼화콘덴서, 파두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KOSPI는 10월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과 AI 투자 수익성 우려 완화로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덜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점도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등락이 클 수 있습니다. 3분기 미국 대형 기술기업 실적으로 AI 산업의 성장세는 재확인됐지만, 투자 지출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빠르게 늘면서 투자금 회수 기간과 자금 조달 부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인텔 사례처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11월에도 경계심은 이어지겠지만, 월말까지 이어지는 실적 발표를 거치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월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상 이후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바뀌었고, 높은 물가는 추가 지표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미 12월 인상에 대비하고 있어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올랐던 과거 패턴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불안의 핵심은 정치보다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AI 관련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AI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시작하고 있으나, 고금리 환경에서의 AI에 대한 우려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며, AI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가 이에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최근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악화된 현금흐름이 다시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KOSPI의 밸류에이션은 저점을 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재반영 되고 있는 악재 또한, 빅테크들의 악화된 현금흐름, 미국 장기 국채금리, CXMT를 선두로 한 중화권 업체들의 성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에 이은 2027년의 이익 추정치 상향에 대한 신뢰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짐에 따라 반도체 대형주의 반등은 여러 분기의 실적발표를 통해 확인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I를 통한 경제 성장은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며, AI 테마는 2027년에도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형주의 주가 회복 속도가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AI 밸류체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을 선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펀드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2026년 대비 2027년 이익 성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업체들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모멘텀이 조정을 받을 경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유, 이차전지 등 방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을 일정 비중 확보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바뀌게 될 정책적 방향에 따른 수혜주, 개별 성장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을 골라 추가적인 성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강화되는 주주 환원 모멘텀, 지분 경쟁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6-10-30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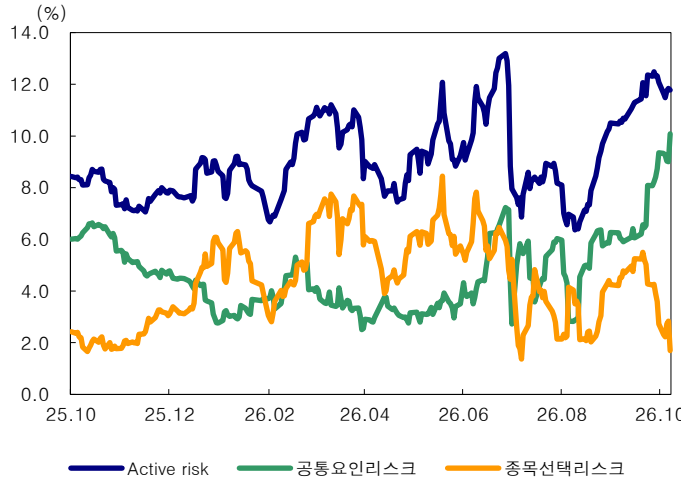
	2026-10-30	2026-09-30
Active Risk [1]	14.35%	10.53%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12.67%	6.0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25.22%	11.37%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1.37%	-5.37%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1.68%	4.53%
베타	1.13	1.18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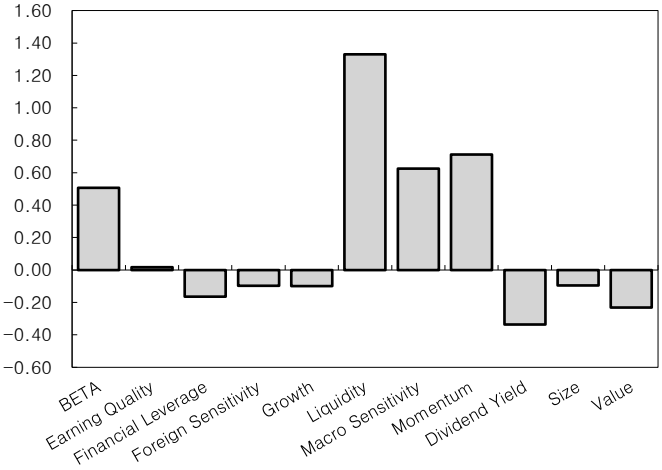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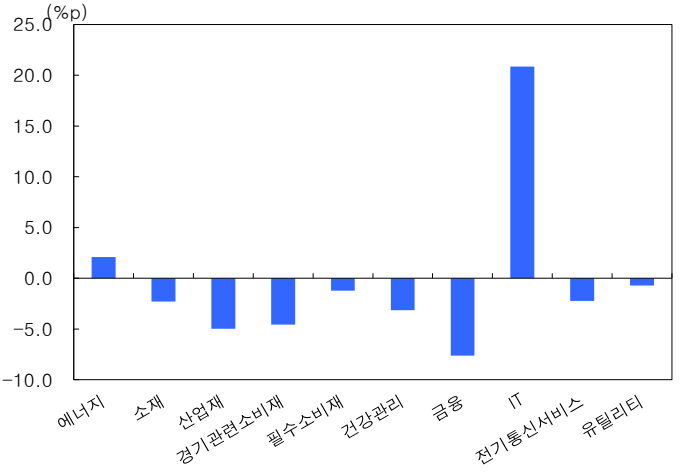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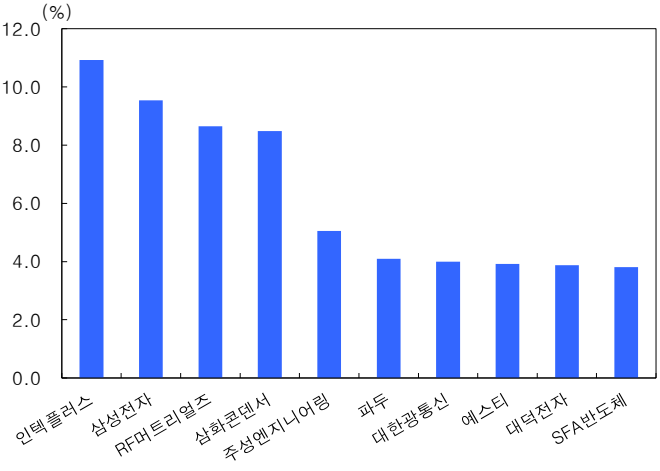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0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14.35%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2개 종목 증가하여, 41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산업재', '에너지'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유틸리티'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인텍플러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삼성전자'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Dividend Yield'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